

유학생 511명 입학...동신대 '글로벌 캠퍼스' 우뚝

12개국...재학생 포함시 2천442명
최근 '외국인 신입생 동기유발 캠프'
맞춤 교육 문화 취업 프로그램 호평
이주희 총장 "대학 통해 꿈 이루길"



동신대의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이 12개국 511명에 달해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사진은 최근 개최한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동기유발 캠프'.

(동신대학교 제공)

동신대의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이 12개국 511명에 달해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과정 68명, 학부 208명, 대학원 235명 등 총 511명으로 재학생을 포함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22개국 2천442명으로 늘어났다.

동신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6일 이틀간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동기유발 캠프'를 개최했다.

5일에는 영어권인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신입생을 대상으로, 6일에는 비영어권인 베트남·중국 신입생을 대상으로 차별

화된 캠프가 진행됐다.

사전공연으로 유학생 선배들의 K-POP공연, 네팔 전통 춤, 중국 무술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공연예술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유학생들을 위한 댄스 무대를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유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꼭 알아야 할 수강신청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용법, 교육과정, 학과 소개, 졸업요건 등 주요 정보가 제공됐다.

교수-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유

학생들 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한국 유학생들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사회 적응 정보, 한국 유학생들 교육, 생활법률 및 질서, 범죄예방교육 등도 병행됐다.

동신대는 2025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돼 6년 연속 인증대학에 이름을 올렸고,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신뢰받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어·이중언어·영어 트랙 등 세분화된 교육과정과 함께 문화·진로 프로그램, 취업 캠프, 학습 지원 프로그램, AI 기반 동시번역시스템 등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라온지, 조리가 가능한 유학생 전용 기숙사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환경도 잘 갖춰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동신대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AI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했으며 유학생

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희 총장은 "미래 에너지산업과 AI 산업의 전진기지인 전남에서 동신대의 선진적인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신대에서 보낸 시간이 인생의 소중한 자양분이 돼 각자 소중한 꿈을 꼭 이루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대, '전 생애주기 AI 교육 생태계' 구축

글로벌대학30·RISE 사업 등 연계
지난해 3천여명 AI 교육 성과 창출
지역 기반 대학교육 혁신 모델 주목



전남대학교가 늘봄교실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전남대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 AI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교육원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시민 및 재직자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AI 교육을 운영, 지역 기반 대학교육 혁신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원은 글로벌대학30, 늘봄사업, 디지털새싹 사업, RISE 사업을 연계해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대학·평생교육을 연결하는 지역 AI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은 RISE 늘봄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 직접 개발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58개 학급 40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새싹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AI 교육을 통해 42개 교육과정에 1천265명이 참여하며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했다.

대학생 대상 교육도 확대되고 있다. 전남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예비 신입생 대상 '생성형 AI'와 '피지컬 AI' 교육 과정을 진행했으며, 22개 학과 110명이 AI 기초 역량을 키웠다.

또한 RISE 사업 기반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AI 모델 배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 AI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시민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AI 평생교육도 추진 중이다. 전남대는 '광주형 미래라이프 커뮤니티 아카데미: 지역 맞춤형 DX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과 재직자 1천여명을 교육했다.

시민 교육에는 60-70대 방송통신고 학생과 지역 주민 712명, 재직자 교육에는 경찰·금융 산업 종사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234명이 참여해 업무 자동화와 AI 활용 역량을 강화했다.

전남대 소프트웨어교육원은 초등 늘봄교육, 중·고 디지털새싹 교육, 대학생 AI 교육, 시민·재직자 평생교육을 통해 지난해 3천여명의 AI 교육 성과를 창출했다.

김경백 소프트웨어교육원장은 "AI 교육을 특정 연령이나 전공에 한정하지 않고 초등 늘봄 교육부터 시민과 재직자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AI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AI 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동강대 육군 부사관학군단 3년 연속 100% 임관

내달 17일까지 12기 후보생 모집

동강대가 광역단체에 속한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한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이 임관 전 종합평가에서 전원 합격하며 3년 연속 100% 임관을 기록했다.

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제305학생군사교육단 RNTC는 최근 전북 여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RNTC 10기 임관식에서 육군 하사 6명을 배출했다.

2022년 7월 창설한 동강대 학군단 RNTC는 20

21년 8기 18명, 지난해 9기 10명에 이어 올해 10기까지 모든 후보생을 100% 임관시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관 전 종합평가에서 전원이 합격하는 등 학군단 운영 대학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학군단임을 입증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김제웅(군사학과) 하사가 30년 이상 전방사단 현역 원사로 근무 한 부친에 이어 육군 부사관이 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동강대 학군단은 오는 4월17일까지 12기 후보생을 모집한다. /박선욱 기자

전남 학생들 발간 책, 목포도서관에 소장

'나도 작가 프로젝트'...300여권

전남도교육청은 9일 "2025학년도 학생 책 출판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인 '나도 작가 프로젝트'로 발간된 책 300여권을 전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에 소장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글쓰기와 편집, 출판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든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은 목포도서관 내 '어린이 자료실'에서 만나

수 있으며 대출도 가능하다.

김춘호 목포도서관장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작물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학생 주도 독서인문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